

1980年代 韓國資本主義： 構造轉換의 10年

金 炯 基*

한국자본주의에서 1980년대는 1970년대까지 형성되고 있던 축적구조가 확립되고 강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구조전환의 10년’이라 규정할 수 있다.

1980년대 초에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축적구조가 확립된다. 하청관계를 통해 비독점자본이 독점자본의 재생산구조에 통합되고 양자 간의 양극구조가 형성된다. 기술적 종속 상태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이 결합되고 고생산성과 고임금이 결합되며 테일러주의와 기계화가 결합되는 ‘예속적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확립된다. 이 축적체제에서 개발독재와 시장전제주의라는 조절양식이 작용하였다.

1985년과 1987년의 두 전환점을 거치면서 이러한 축적체제에 구조전환이 발생한다. 첫째,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 양자간의 하청관계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양극 구조가 심화되었다. 또한 하청관계의 성격도 생산하청과 유기적 하청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생산의 집중화 경향이 역전되어 생산이 분산된다.

둘째, 종속적 재생산구조가 변화한다. 급상승으로 국내시장이 확대되어 해외시장 의존이 완화되며, 국제수지의 호전으로 금융적 종속이 크게 약화된다. 주요 독점기업들이 기업 내 혁신체제를 갖추고 기술혁신능력을 향상해 감에 따라 기술적 종속이 약화된다.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독점자본은 예속독점자본으로부터 본래의 독점자본으로 전화한다.

셋째, 임노동관계가 변화한다. 자동화·극소전자화에 따라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컴퓨터지원 테일러주의’로 전화하여 탈숙련이 더욱 진전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육체노동의 복잡화와 다기능화 현상이 나타난다. 1987년 이후 병영적 노동통제체제가 붕괴되고 단체교섭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임금 및 고용이 경직화된다. 자본은 ‘수량적 유연성’ 전략으로 이에 대응한다. 임금의 대폭적 상승으로 내구재의 대량소비가 나타나고 노동자들의 소비양식이 변화한다. 독점강화의 효과와 노동자 대투쟁의 효과가 중첩되어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 분단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본과 임노동의 재생산구조 변화는 예속적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구

* 慶北大 經濟學科 教授.

조건환을 가져와 대량생산-대량소비, 고생산성-고임이라는 본래의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형성되고 독점적 조절양식이 등장한다. 기업수준에서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이 이루어지지만 노동과정에서는 노동강화와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이 추구된다. 따라서 80년대 초에 확립된 예측적 포드주의 체제는 80년대 말에 본래의 포드주의 축적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네오 포디즘적 요소가 결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I. 머리말

1960년대 이후 시기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1980년대는 1970년대까지 형성되고 있던 구조가 확립되면서 경제적 토대, 정치적 상부구조, 그리고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구조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시사해 주는 분석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구조변화의 몇 가지 측면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고, 기본적 구조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성과들을 참고하고 필자 나름의 방법론에 따라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전환을 체계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 구조전환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식할 것인가? 우리는 ‘賃勞動論에 기초한 經濟社會-政治社會-市民社會 3部門模型’(김형기(1993))에 따라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를 인식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는 社會構成을 資本, 賃勞動, 國家, 市民社會라는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자본과 임노동은 경제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는 정치사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결국 사회구성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제사회-정치사회-시민사회 3부문 간의 접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3부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사회구성의 구조변화가 일어난다.

경제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 자본의 재생산과 임노동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동학과 모순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토대이다. 이러한 경제사회는 자본 간 경쟁, 노동자 간 경쟁, 자본-임노동 간 투쟁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은 잉여가치의 생산과정과 실현과정, 축적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과정 분석에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생산방식, 소비양식, 축적양식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의 재생산과정에는 자본 간

경쟁과 임노동에 대한 자본의 투쟁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종속적 재생산구조 속에서 독점자본주의가 성립했기 때문에(김형기(1988), 이재희(1990)), 1980년대의 자본의 재생산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점’과 ‘종속’이라는 두 가지 경쟁형태를 분석해야 한다. 독점은 국내시장에서의 자본 간 경쟁형태로서 독점과 비독점간의 지배-종속관계를 성립시킨다. 종속은 세계시장에서의 자본 간 경쟁형태로서 국민경제들 간의 지배-종속관계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를 인식하려면, 독점자본의 지배구조와 종속적 재생산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 성격논쟁에서 제기된 ‘獨占強化-從屬深化’ 명제¹⁾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의 경향에 대한 이 명제가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동태적 과정 속에서 현실적합성을 가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즉 독점강화 속에서 종속이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약화되었는지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임노동의 재생산과정은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노동시장이라는 순환계열상에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노동과정은 생산기술과 숙련의 내용 등 기술적 측면과 노동조직과 노동통제방식 등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 노동력 재생산에는 소비생활, 자유시간, 지식과 숙련형성 등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 측면과, 노동자의 욕구와 의식의 성격 등 노동자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측면이 포함된다. 노동시장은 노동력 수급구조, 임금구조와 고용구조, 노동시장 계층구조를 포함한다.

임노동의 재생산과정에는 노동자 간 경쟁과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투쟁이 나타난다. 노동자 간 경쟁은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 그 조건이 형성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경쟁형태로, 노동과정에서는 승진을 둘러싼 노력경쟁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자 간 경쟁은 노동자들 내부의 분할을 가져온다. 특히 노동시장 분단은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초래하는 주요인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결합은 노동자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1) ‘독점강화-종속심화’ 명제는 1980년대 후반에 전개된 한국사회 성격논쟁 혹은 한국자본주의 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핵심명제였다. 이 명제에 의하면 한국자본주의가 종속적 재생산구조에서 독점이 강화되며, 독점의 강화가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의 심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당시 이 명제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법칙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윤소영(1988)을 참조.

그런데 그 동안 거의 대부분의 한국자본주의 연구에서 이러한 임노동 재생산에 대한 분석이 결합되지 못하였다. 자본의 재생산과 상호작용하는 임노동의 재생산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일면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구조변화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일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다.²⁾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임노동 재생산이 자본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 분석에서 임노동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위해 우리는 이 글에서 임노동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고자 한다.

그런데 임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을 분석하는 조절이론에 기초하여 제3세계 신흥공업국가를 분석한 바 있는 Lipietz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제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周邊部 포드주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³⁾ 세계자본주의에서의 주변부적 지위에 따른 특수성, 즉 노동과정의 구상기능과 숙련작업의 해외의존, 외채의존, 해외시장의존 등에도 불구하고 포드주의라는 축적체제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 임노동 분석에 기초하여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걸쳐 한국에서 ‘隸屬的 포드주의’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 한편 Amsden(1990)은 Lipietz의 ‘주변부 포드주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는 포드주의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학습을 통한 산업화’라는 새로운 모델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병천(1995)은 이러한 Amsden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를 포드주의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주변부 포드주의’ 혹은 ‘예속적 포드주의’로 파악할 수 있

2) 사실 1980년대 후반의 한국자본주의 논쟁에서 제출된 거의 모든 입론들은 주로 자본의 재생산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들이었다. 즉 임노동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었다.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분석과 발전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변혁의 실천전략을 제시하려고 했던 당시의 많은 논의들이 임노동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3) Lipietz(1987, 1992)를 참조.

4) 필자가 사용하는 ‘예속적 포드주의(Subordinate Fordism)’ 개념은 리피에츠의 주변부 포드주의(Peripheral Fordism) 개념에서(Lipietz(1982)) 시사받은 바 크다. 두 개념은 내용면에서 유사하지만 리피에츠가 중심부와외의 경제적 관계로서의 ‘주변부성’에 주목하였음에 반해, 필자는 중심부에 대한 사회구성체의 종속을 의미하는 ‘예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리피에츠는 한국, 멕시코, 브라질 등 주변부 신흥공업국가의 현상관찰로부터 이 개념을 도출하고 있지만 필자의 ‘예속적 포드주의’ 개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예속적 포드주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형기(1988)를 참조.

는가 없는가, 나아가 1980년대를 통해 ‘주변부 포드주의’ 혹은 ‘예속적 포드주의’가 구조전환을 하는가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 분석은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 국가와 임노동 간의 관계, 시민사회와 자본 간의 관계, 시민사회와 임노동 간의 관계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제한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및 시민사회와 자본 및 임노동 간의 관계에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은 주로 정치학 및 사회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이들 변수와 자본-임노동관계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자본-임노동관계와 자본 간 관계를 중심으로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 축적구조를 분석하고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1980년대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가 전환하는 10년임을 보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에서 그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독점강화-종속심화’ 명제와 1990년대 들어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변부 포드주의’론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 분석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II. 蓄積構造: 獨占과 포드주의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재생산과 임노동의 재생산을 총괄하는 축적구조는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독점자본은 1960, 1970년대에 급격히 형성되고 1980년대 초에 지배적 자본으로 확립되며,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1970년대 중반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1980년대 전반에 들어오면서 확립된다(김형기(1988)). 한국에서 독점자본은 애초에 종속적 재생산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예속독점자본으로 존재해 왔다. 즉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기술적, 금융적, 상업적으로 종속되면서 국내에서 독점자본 지배체제를 구축해 왔다. 또한 독점자본은 정부주도 경제개발 아래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다. 따라서 독점자본은 外資依存

성과 國家依存性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이재희(1990)).

마찬가지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도 대외의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즉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의 핵심적 구상기능을 외국에 의존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국민적 기초 위에 성립하지 못한 채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포드주의는 '예속적 포드주의'(김형기(1988))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隸屬性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독점과 포드주의는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를 특징지우는 두 가지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⁵⁾ 그러면 1980년대에 성립한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구체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1. 獨占資本 支配體制와 兩極構造의 形成

한국에서 독점자본은 재벌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자본 지배체제는 곧 재벌지배체제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재벌지배체제 아래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양극구조가 형성된다. 즉 독점적 생산구조와 시장구조 속에서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 간에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통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기업 간 관계에서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독점적 축적이 전개된다.

독점대기업이 주도하는 축적구조에서 독점적 생산구조와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제조업의 출하집중률 지표를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상품시장에서 독점적 시장구조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상품시장의 독점은 강화된다. 1980년에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미 이 시기에 독점적 시장구조의 모순이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할 만큼 격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5)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구조를 '독점'과 '포드주의'라는 두 개념으로 인식하려는 필자의 시각은 자본 간 관계의 형태인 '독점' 개념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기존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구별되고, 자본-임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포드주의' 개념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조절이론과도 구분된다. 필자는 한국자본주의 축적구조 분석에서는 '독점' 개념과 '포드주의' 개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경우, 독점자본주의론과 조절이론이 가지는 일면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독점적 생산구조 및 시장구조의 추이

(단위: %, 개)

	1981	1985	1987	1989
30대 재벌의 출하액 비중*	39.7	40.2	36.8	35.2
독과점시장 비중**	73.9	69.9	64.8	62.7
시장지배적 사업자 수***	102	216	240	307

주: * 광공업부문임.

** 출하액기준으로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의 비중.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국내 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1사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사업체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표 1〉에서 30대 재벌의 광공업부문 출하액 비중, 上位 3社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獨寡占市場의 비중, 市場支配的 사업자 수 등의 지표를 종합해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점적 시장구조가 완화된다고 경쟁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1980년대를 통해 독점적 생산구조 및 시장구조가 지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1980년대 중반 이후 30대 재벌의 출하액 비중과 독과점시장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곧바로 독점의 약화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 간에 하청관계를 통해 생산의 분산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980년대를 통해 독점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독점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독점기업 중에서도 특히 재벌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력은 1980년대를 통해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다. 자본축적, 생산, 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국민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재벌의 지배구조가 구축되었다. 10대 재벌의 매출액은 1979년에 경상GNP의 33%이었으나 1989년에는 54%나 된다. 그래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재벌을 비롯한 독점적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과 농민,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피해를 막는 데는 무력하였다.

특히 재벌은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零和 게임(zero-sum game)인 이러한 투기적 축적은 다른 경제주체들로부터 재벌에게로 막대한 부를 이전시켜 부의 불균등분배를 악화시켰다. 아울러 재벌기

업의 족벌적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소유자 경영체제와 병영적 노동통제를 낳았다. 더욱이 재벌과 독재정권 간의 공생체제인 정경유착은 한국자본주의를 ‘부패자본주의’로 만들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재벌지배체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문제시되었다. 재벌에 대해서 ‘獨占規制’와 ‘反獨占’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정책대안이 제기되었다. 독점규제는 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벌지배체제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모순을 완화하려는 정책대안이고, 반독점은 주로 공정성의 관점에서 재벌지배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이다. 독점이 강화되고 있던 1980년대 상황에서 독점규제는 주로 정부측과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반독점은 주로 민중운동과 정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독점자본은 투기성과 부패성 그리고 寄生性을 가졌지만 혁신성도 가졌다. 독점기업이라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는 말하자면 경쟁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국내시장에서도 독점기업 간 혹은 재벌기업 간 독점적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 간 경쟁이 기술혁신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기술적 종속의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활동이 독점대기업을 중심으로 1980년대에 전개된다. 기술혁신능력은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학습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내 혁신체제’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성립함으로써 형성되었다(김 건(1994)).

독점자본 지배체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집약도와 기계장비율의 격차, 그리고 노동생산성 격차는 1980년대에 들어와 크게 확대된다. 500인 이상 대공장 노동자의 비율과 생산액 비율을 보면, 1970년대 말까지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 다소 감소한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액 비율은 1980년대에 들어와 증가한다. 이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청관계가 확대 심화된 결과 생산의 분산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점자본 지배체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은 결국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 간에 양극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결국 1970년대에는 독점자본의 형성과정에서 생산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다가,⁶⁾ 1980년대에 들어오면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 간에 한편에서 생산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다른 한편에서 하청관계가 심화되면서 독점강화 속에서 생산

6)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김형기(1988)를 참조할 것.

〈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구조 추이(제조업)

	1975-1979	1980-1984	1985-1989
① 자본집약도 격차	1.82	2.51	2.54
② 기계장비율 격차	2.22	3.44	3.36
③ 노동생산성 격차	1.75	2.00	2.03
④ 대공장 노동자 비율	44.0	39.2	34.8
⑤ 대공장 생산액 비율	56.3	57.6	52.6
⑥ 중소기업 생산액 비율	31.3	33.6	38.5

주: ① (총자본 / 종업원 수), ② (기계장치 / 종업원 수),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5년 평균치와 중소기업의 그것과의 비율임. ④와 ⑤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 ⑥은 300인 미만 사업장.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의 분산화가 진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70년대까지는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에 생산과정상의 상호연계가 약한 채 ‘二重構造’ 상태에 있었지만, 1980년대에는 하청관계를 통해 비독점자본이 독점자본의 재생산구조에 편입되면서 양자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兩極構造’가 형성된다.⁷⁾ 이러한 양극구조에서 불평등한 하청관계를 통해 하청단가 인하 등의 형태로 비독점자본으로부터 독점자본으로 잉여가치가 이전되었다. 그래서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에는 상호의존과 상호대립이라는 모순된 두 측면이 존재해 온 것이다.

2. 포드주의적 蓄積體制와 賃勞動關係의 成立

이와 같이 한편에서 독점자본 지배 아래 양극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대 초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 고생산성과 고임금의 결합, 테일러주의와 기계화의 결합을 통해, 내포적 축적체제가 성립하고 독점적 조절양식이 작용하는 본래의 ‘포드주의’가 ‘예속적 포드주의’라는 특수한 형태로 정착된다. 여기서는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주요소의

7) 흔히 혼용되고 있는 ‘이중구조’ 개념과 ‘양극구조’ 개념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중구조(dual structure)는 상이한 두 재생산구조의 병존을, 양극구조(polarization)는 단일 재생산구조 속의 양극화된 부분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중구조와 양극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상황을 지칭한다.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가 이중구조에서 양극구조로 전환했다는 것은 중대한 구조전환을 의미한다.

하나인 ‘예속적 포드주의’의 구체적 측면을 임노동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표 3>에서 생산요소로서의 자본과 노동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는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진 반면 자본투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노동투입에서 고용자 수 및 노동시간의 기여도가 크게 감소한 반면 교육요인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70년대까지는 주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노동투입의 양적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추구되다가, 1980년대에는 주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방식에서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이 추구되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생산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전반까지는 섬유, 전자산업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테일러주의적 생산체제가 지배하다가,⁸⁾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산업의 독점기업을 중심으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잉여가치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테일러주의적 생산체제가 성립하고 있었던 1970년대에는 주로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이 지배하면서 부차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가 추구되다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 1980년대에는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이 지배하는 가운데 부차적으로 절대적 잉여가치가 추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데 대량생산체제를 작동시키는 핵심적 생산설비와 핵심적 構想機能은 외국에 의존하였다. 즉 공작기계 등 자동화 생산설비와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을 위한 기획 및 설계기술을 미국과 일본 등의 독점자본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에 자본재도입과 기술도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그 반영이다. 이는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 혹은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기술적 기초는 해외에 있었으며, 따라서 기술적 종속은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내장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물론 한국의 독점자본은 이러한 기술적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편화된 중급기술을 상당 정도 자급하

8) Lipietz는 제3세계의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서 중심부로부터 산업부문 내 분업이 이전되어 전개되는 단순반복작업에서 테일러주의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를 공업화에서 본원적이라는 의미에서 ‘본원적 테일러화’로, 노동자에 대해 유형적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유형적 테일러화’라 규정하였다. 리피에츠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 한국의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생산방식과 공업화를 ‘본원적 테일러화’로 파악한다. 자세한 논의는 Lipietz (1987), pp. 107-113을 참조.

〈표 3〉 GDP 성장의 기여도(주요 항목)

	1963-1973	1973-1979	1979-1990
요소투입	5.64	7.01	6.66
기업노동투입	3.18	3.49	2.66
고용자 수	2.28	2.13	1.64
노동시간	0.50	0.52	-0.07
교육	0.47	0.55	0.94
비주거용 자본투입	1.19	1.79	2.66
요소투입당 생산	3.37	2.25	1.55
규모의 경제	0.26	0.34	0.21
지식 진보와 기타	1.64	-0.02	0.50
성장률(연평균)	9.00	9.26	8.21

자료: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4, p. 29에서 재인용.

면서 기술적 종속이 약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엄창옥(1994)).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하위 구상기능은 주로 공대출신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단순반복노동을 하는 실행기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량 창출된 單能熟練 노동자들(이른바 기능공)과 사무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1970, 1980년대 정부의 중등교육정책과 직업훈련정책은 이러한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실행기능에 적합한 단순기능인력을 대량창출하는 데 그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그래서 포드주의 노동과정에 적합한 노동력 재생산구조가 형성되었다. 공고 등 실업계 고교와 직업훈련기관 출신들이 대량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됨으로써 포드주의 노동과정이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점기업들의 포드주의 노동과정에서는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는 테일러주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었다. 육체노동은 더욱 단순화되고 파편화되어 갔다. 위계적 노동 통제는 병영적 통제와 결합되어 억압적 성격이 강했다. 현장노동자들에게 직무자율성은 주어지지 않았다(김형기(1988)). 이러한 노동과정의 성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대량생산체제가 유지되려면 대량생산에 대응한 대량소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임금체제가 존속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계급의 대량소비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1980년대를 통해 30-40%수준의 높은 수출 의존도가 말해 주듯이 협소한 국내시장의 낮은 구매력을 훨씬 초과하는 수출지향 생산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확립된 대량생산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이 아니라 대량생산과 대량수출(대량 해외소

비)의 결합으로 유지되었다. 요컨대 본래의 포드주의에서 이루어지는 內包的 蓄積은 세계시장에의 높은 의존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해외시장 의존의 대량생산체제는 세계시장에서의 자본 간 경쟁에서의 국내자본의 취약한 지위와 세계경제 특히 美·日 경제의 경기변동에 대한 강한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내재적으로 심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안 신국 체분업질서 속에서 저임금에 기초한 중저가품의 대량생산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 수출증대가 가능했고 따라서 대량생산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에 성립한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는 고생산성과 고임금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고생산성과 저임금이 결합되어 있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실상 불법화되어 있었고 단체교섭제도도 정착되지 못했다. 사회보장도 극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포드주의 발전양식에서 나타나는 獨占的 調節樣式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1980년대 초에 성립한 '예속적 포드주의'에서의 조절양식은 독점적 조절양식이 아니었다.¹⁰⁾ 그렇다고 순전히 시장경쟁을 통해 임금 및 고용 등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경쟁적 조절양식도 아니었다. 임노동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억압과 시장경쟁의 외적 강제가 동시에 가해지고 있었다. 유신체제 아래 경제개발을 앞세운 독재가 인권과 노동권을 억압하였고, 노동력 공급과잉과 치열한 기업 간 경쟁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채찍을 가하였다. 한편에서 개발독재체제 아래 국가에 의해 노동 3권이 억압되고 다른 한편에서 방대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박을 받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와 병영적 노동통제체제가 성립하였으며, 그러한 조건에서 임노동관계가 재생산되었다.

9) 조절이론에서는 조절양식을 '경쟁적 조절양식'과 '독점적 조절양식'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쟁적 조절양식'은 시장경쟁에 의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고 노동규범과 소비규범이 큰 변화 없이 임노동관계가 재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독점적 조절양식'은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성 임금이 지급되고 고용관계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노동규범과 소비규범이 변형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고생산성-고임금-고소비'를 통해 임노동관계가 재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10) Amsden은 이와 같이 중심부 국가의 본래의 포드주의에서 작용하는 독점적 조절양식이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모델을 포드주의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Amsden(1990), pp. 8-14). 그러나 리피에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일본도 '진짜' 포드주의는 아니었던 것이고, '포드주의의 公準'이라는 것은 實在하지 않으며, 중심부 국가와 한국의 발전모델에서 조절양식의 차이는 사회구성의 특수성(주변부성 혹은 예속성)에서 비롯되는 포드주의 유형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Lipietz(1987), pp. vii-xi).

요컨대 ‘開發獨裁’와 ‘市場專制主義(market despotism)’¹¹⁾가 축적체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조절양식을 ‘개발독재와 시장전제주의에 의한 조절’ 혹은 ‘국가의 독재와 시장의 전제에 의한 조절’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절양식은 달리 표현하면 ‘독재와 결합된 경쟁적 조절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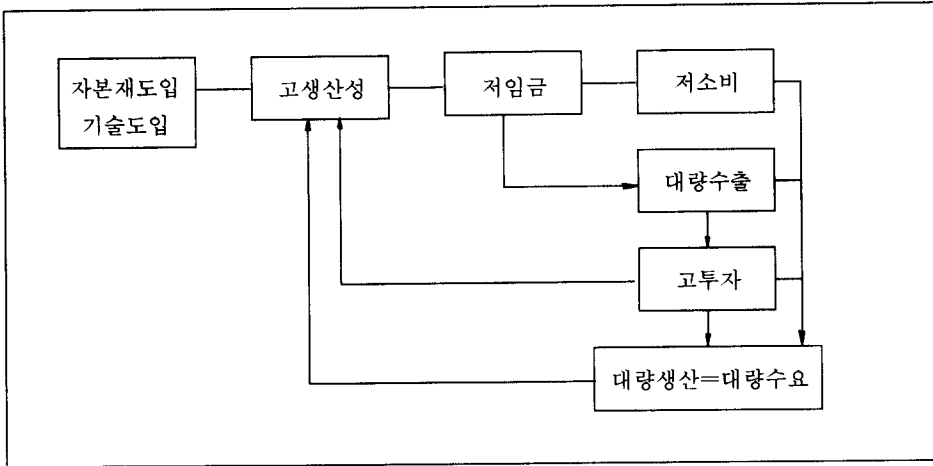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가진 예측적 포드주의의 巨視經濟的 回路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핵심설비와 핵심기술의 도입을 통해 대량생산체제 아래 고생산성이 발휘되었다. 고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이 지급되었다. 저임금 때문에 노동계급의 소비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신 저임금은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중저가품의 대량수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량수출은 높은 수준의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대량수출, 고투자자는 생산재 및 소비재의 대량수요를 창출하여 대량생산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속적인 고투자와 대량생산=대량수요는 높은 생산성의 지속적 발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해서 ‘기술적 종속-고생산성-저임금-고투자-대량수출-대량생산’이라는 거시경제적 회로를 가진 축적체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중심부에서 국민적 기초 위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을 통해 유지되는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주변부인 한국에서는 세계시장에의 편입을 매개로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즉, 대량 해외소비)의 결합을 통해 예측적인 형태로 성립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종합하면 1980년대 초에 한국자본주의에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종속적 재생산구조 아래 예측적 형태로 성립하고 있었지만, 중심부 포드주의에 나타나는 독점적 조절양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요컨대 발전양식으로서의 본래의 포드주의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것이 1980년대 초에 한국에서 성립한 ‘예측적 포드주의’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초에 한국자본주의는 개발독재와 시장전제주의라는 조절양식이 작용하는 가운데 예측적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와 예측적 포드주의라는 축적체제가 성립하고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양극구조에서 지속적

11) 시장전제주의는 생산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외재적이고,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으로부터의 분리가 완전하며, 자본 아래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지며, 노동공급이 과잉하고, 기업 간 경쟁이 無政府의인 조건에서, 노동자들에게 시장의 경제적 채찍이 가해져 공장 내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제지배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Burawoy(1985), pp. 89-91).

〈그림 1〉 '예속적 포드주의'의 거시경제적 회로



고도축적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축적구조를 갖추게 된다. 독점자본의 부패성 및 투기성과 혁신성,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상호의존과 상호대립, 고생산성과 저임금, 기술적 종속과 중급기술의 자급 등 상호모순하는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경제적 종속 아래 모순에 찬 역동성 있는 자본주의'가 성립한다.

Ⅲ. 構造轉換의 諸側面

1980년대 초 확립된 이러한 축적구조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러 측면에서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예속적 포드주의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1980년대 10년간의 짧은 기간에 1985년과 1987년, 이 두 전환점을 거치면서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전환은 자본 간 경쟁, 노동자 간 경쟁, 자본과 임노동 간의 투쟁, 국가와 자본 간의 결합, 국가와 임노동 간의 투쟁 등, 자본-임노동-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변수들의 상호작용의 총체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조전환의 측면을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의 변화, 종속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임노동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獨占資本과 非獨占資本 간의 關係變化

1980년대에는 독점자본의 지배구조가 강화되지만, 독점자본의 비독점자본 지배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하청관계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하청관계는 그 자체가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모기업들의 핵심이 독점기업이고 하청기업은 거의 대부분 비독점기업이기 때문이다.

앞의 <표 2>에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생산의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다가 1980년대 후반에 대공장의 생산액 비중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이 증대한다. 이러한 생산의 분산화 현상은 주로 독점 대기업이 노무관리비용을 줄이고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외부하청을 확대한 결과이다. 하청관계는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크게 확대된다. <표 4>에 보는 것처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하청의존도는 1980년에 25.6%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무려 66.6%에 달하며 1987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총수출 중 로컬수출의 비중은 1980년대 초 이후 크게 증대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청관계의 성격은 상업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거래인 유통하청보다는 산업자본 사이에 나타나는 중간재 주문생산인 생산하청으로 발전해 간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하청에서 생산하청 비율이 1980년대 초부터 1987년 이후 크게 증가한다. 1982-1990년간에 섬유산업에서는 56.2%에서 85.6%로, 기계금속산업에서는 76.1%에서 94.2%로 크게 늘어난다. 기계금속산업의 생산하청에서는 대부분 독점자본=모기업이 조립부문을 담당하고 비독점자본=하청기업이 부품부문을 담당하는 생산공정분업 혹은 산업 내 분업 체제가 확립된다. 이러한 생산하청 내에서 모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난다. 아울러 하청기업의 재료비와 이윤이 인정되는 일반하청의 비율이 1980년대에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모기업이 하청기업에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불하는 단순임가공하청이 아직도 지배적이지만 일반하청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청기업의 자본재 생산의 독자성이 그만큼 증대한 것을 말해 준다(홍장표(1993)).

〈표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관계 변화

(단위: %)

	중소기업	중소기업	생산하청	일반하청 비율		하청기업
	하청의존도	로컬수출비율	비율	기계금속	섬유	기술·경영지도
1980	25.6	20.2	—	43.5	15.6	6.5
1981	28.8	21.2	—	37.5	15.7	6.3
1982	34.6	38.3	71.8	36.2	19.2	13.1
1983	35.7	42.1	74.8	39.7	19.2	10.3
1984	40.5	48.3	73.8	43.4	16.1	11.7
1985	37.6	42.5	76.7	37.7	27.1	18.7
1986	38.2	45.1	75.6	41.8	26.3	14.9
1987	43.8	39.4	76.3	45.6	28.1	17.4
1988	46.6	44.6	77.2	45.5	29.5	13.2
1989	62.7	44.1	86.0	48.2	38.0	19.8
1990	66.6	41.7	87.9	52.1	36.8	18.0

주: 하청의존도=(국내주문판매액+로컬수출액)/매출액.

로컬수출비율은 총수출액 중 로컬수출의 비율임.

생산하청비율은 생산하청[(국내주문판매액+로컬 L/C완제품+로컬 L/C의 반제품)/총 판매액]과 유통하청[(로컬 L/C완제품+로컬 L/C와 완제품)/총판매액]을 합한 것에서 생산하청이 차지하는 비율임.

일반하청 비율=(중소기업으로부터의 하청구매액/대기업의 자작액+중소기업으로부터의 하청구매액)

모기업의 하청기업 지원은 기계금속산업의 경우이며 지원내역에는 설비대여가 포함됨.

자료: 홍장표(1993)에서 인용.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7년 이후, 독점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청관계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하청관계의 성격이 유통하청으로부터 생산하청으로, 생산하청은 경기변동의 완충장치로서의 부동적 하청으로부터 생산력 보강기구로서의 유기적 하청으로 점차 변화해 간다. 그리고 생산하청의 확대에 따라 생산의 집중화 경향이 역전되어 생산의 분산화 경향이 나타난다. 생산의 분산화에 따라 대기업에의 노동자 집중현상도 완화된다.

이와 같이 하청관계의 확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생산의 분산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단순히 양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이를 독점의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질적이고 생산관계적인 측면을 동시

에 주목하면 중소기업의 하청의존도 심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생산의 분산화는 중소기업이 독점자본의 재생산구조에 통합되고 독점적 지배력이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비독점자본이 편입되고 독점자본 지배체제가 새로이 강화되는 가운데 생산의 분산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무튼 독점자본 지배체제 아래 하청관계를 통해 비독점자본에로의 생산의 분산화 현상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독점자본은 한편에서는 하청단가의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을 통해 비독점자본을 수탈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품질관리, 기술지도, 공동개발 등을 통해 비독점자본의 성장을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를 통해 前者의 측면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後者の 측면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1987년이후 生産의 分散化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하청관계에 있는 비독점자본의 생산력이 독점자본의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즉 양자 간에 생산력상의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독점기업이 하청관계에 있는 비독점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품질관리기법 등 기술지도와 기술이전,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協力的 下請이 나타난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이러한 현상이 점차 확산된다. 그러나 물론 아직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에 유기적 기술협력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생산의 분산화 추세가 지속되고 독점자본이 품질우위를 통해 경쟁력을 획득하려고 할 경우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협력적 하청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생산체제가 중저가품의 대량생산체제로부터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할 경우,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관계가 상호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從屬的 再生産構造의 變化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자본주의는 종속심화 속에서 독점이 강화되어 왔다. 상업적 종속, 금융적 종속, 기술적 종속의 심화를 통해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종속심화 속에서 독점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독점강화-종속심화’ 명제는 1980년대 중반까지 현실적합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속적 재생산구조에 변화가 나타난다.

〈표 5〉의 지표들과 다른 실증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이라는 축적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국내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생산수단의 해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外債가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은 여전히지만 기술도입 의존도가 약간이나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합작기업의 內國企業化가 진전되고 내국자본의 주도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純外債가 감소하고 또한 GNP에 대한 순외채의 비율이 1980년대 후반에 크게 감소하여 외채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산 우려는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에서 종속적 재생산구조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19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어 왔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종속의 완화현상이 나타난다. 1990년대 전반까지의 추세

〈표 5〉 국제경제관계 관련지표

(단위: %, 억 달러, 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출의존도	33.3	32.9	35.5	33.8	28.3	25.8	24.6
수입의존도	34.1	30.0	30.7	28.8	27.9	27.7	27.9
경상수지	-9	46	99	142	51	-22	-87
순외채	355	325	224	73	30	64	119
순외채 /GNP	39.6	31.6	17.4	4.2	1.3	2.5	4.1
차관	19.9	25.0	26.7	18.8	13.3	4.5	4.3
외국인 직접투자	2.4	4.8	6.3	8.9	8.1	9.0	11.8
해외투자	0.7	1.6	3.2	1.6	3.9	8.1	10.4
과실송금	39.8	40.2	34.6	29.3	28.2	32.8	34.5
해외투자수익	7.9	8.1	7.7	9.9	16.8	24.2	25.8
기술도입건수	454	517	637	751	763	738	582
기술사용료 지불	3	4	5	7	9	11	12
해외기술 의존도	25.9	25.7	25.3	22.1	23.2	24.7	23.3

주: 해외투자는 연말 투자잔액 기준.

해외기술 의존도=기술사용료 지불액 / (기술사용료 지불액+R&D 투자액)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통계청.

를 보면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향의 출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자본주의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친 중화학공업화 단계에서는 종속심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시기에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작동시키는 핵심적 생산수단과 구상기능에 대한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화, 극소전자(ME)화 생산단계로 진입해 감에 따라 종속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²⁾ 이 시기에는 핵심적 생산수단을 점차 국산화하고 핵심적 구상기능을 점차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종속심화의 경향이 종속약화 경향으로 反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1980년대 중반까지 종속심화 속에서 독점강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점강화 속에서 종속약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에서 독점강화가 종속약화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를 통해 주요 독점자본들은 기술적 종속 상태에서도 '기업 내 혁신체제'를 갖추고 점차 기술축적을 하여 기술혁신능력을 향상해 감에 따라 기술적 종속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독점기업의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상승 때문에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중간층 소득의 대폭 향상과 1987년 이후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시장이 확대되어 해외시장 의존이 완화되고 국제수지적자 감소와 흑자 실현으로 금융적 종속이 약화된다.

특히 현대자본주의에서 핵심적 종속형태라 할 수 있는 기술적 종속은 전체적 경향으로는 약간 완화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보면 불균등한 양상을 보인다. 즉 중화학공업부문의 보편화된 기술은 자급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극소전자 등 첨단산업부문의 신기술분야에서는 새로히 종속이 심화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어나지만 해외투자도 늘어난다. 이와 같이 기술적 종속의 완화와 새로운 종속의 형성, 자본수입과 자본수출의 동시 병존 속에 경제적 종속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특징 중의 하

12) 한국자본주의에서 중화학공업화 단계에서는 종속심화 현상이, 자동화, 극소전자화 단계에서는 종속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다만,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한 뒤 자동화, 극소전자화 단계로 돌입했기 때문에 종속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종속약화라 해도 자동화, 극소전자화 단계에서 핵심기술의 종속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980년대 전반까지 종속심화가 독점강화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점강화가 노동과정을 媒介로 하여 발휘된 생산력효과를 통해 종속약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종속심화 경향이 종속약화 경향으로 반전한 것은, 제1과정에서 종속심화가 독점강화를 초래하고 제2과정에서 독점강화가 종속약화를 초래한 것, 말하자면 ‘從屬과 獨占의 辨證法的 過程’이 창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점강화는 나아가 자본수출, 즉 해외투자 증가를 가져왔다.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외투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해외투자는 주로 무역마찰 회피 목적의 미국과 유럽으로의 투자와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투자가 주종을 이룬다. 이 시기에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86년 경상수지흑자로의 반전과 정부의 자본유출 장려 정책 때문이었다(좌승희(1995)).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노동력 부족현상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에 따른 급격한 임금 상승이 해외투자를 촉진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자본수입의 급감과 자본수출의 급증현상은 한국의 독점자본이 예측독점자본으로부터 본래의 독점자본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주요한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¹³⁾

종속약화 현상과 아울러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다. 수입자유화,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등 자유화·개방화 정책이 추진된다. 1984년에 제1차 관세인하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관세율은 1984년 21%에서 1988년 17%로 인하된다. 1989년에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무역장벽 사용을 포기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주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때문이었지만, 부차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독점자본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강제하기 위한 국가의 산업정책 때문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1990년대에 들어가서 본격화되는 한국자본주의의 국제화, 개방화 경향 속에서 한국의 독점자본은 예측독점자본으로부터 본래의 독점자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국제독점자본을 지향해 간다. 이러한

13) 물론 이 경우의 자본수출은 이윤을 하락에 따른 과잉자본의 수출을 의미하는 고전적 자본수출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동기에 의한 자본의 국제화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운데 국민경제의 종속적 재생산구조는 서서히 종속약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어간다.

3. 賃勞動關係의 變化

1980년대 초에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성립과 함께 형성된 임노동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크게 변화한다.

우선, 노동과정의 기술적 측면을 보면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서 1980년대 초에 확립된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 1980년대 후반 자동화, 극소전자화(ME화)의 진전으로 심화된다. 즉 컴퓨터기술 혹은 극소전자기술의 도입으로 構想과 實行이 더욱 분리되고 육체노동의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테일러주의가 철저하게 적용되어 탈숙련화가 강화된다. 이러한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을 ‘컴퓨터 지원 테일러주의(Computer-Aided Taylorism)’ 혹은 ‘네오 테일러리즘(Neo-Taylorism)’¹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오면 자동화, 극소전자화에 따라 육체노동의 복잡화와 다기능화 현상이 부분적이거나 나타난다. 이는 독점대기업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업 특수적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柔軟生産體制(FMS)를 도입함에 따라 多技能 熟練勞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現場訓練(OJT), 품질관리 서클(QC), 職務循環, 無在庫 適期生産方式(JIT) 등 日本的 生産方式을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¹⁵⁾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탈숙련화 경향이 역전되어 숙련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노동과정의 사회적 측면을 보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과거의 병영적 노동통제체제가 무너지고 단체교섭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노사관계의 제한적 민주화와 임금 및 고용의 경직화 현상이 나타난다. 병영적 노동통제체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제한적인 정치민주화가 진전되고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조직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노동계급의 힘이 크게 증

14) 네오 테일러리즘(혹은 네오 포디즘)은 포드주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축적체제들 중 19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신보수주의적 대안으로서 컴퓨터의 도입을 통해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는 테일러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노동강도를 강화하면서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하려는 축적전략이다. 이에 관해서는 山田銳夫(1991) 및 Boyer(1990)를 참조.

15) 한국에서의 일본적 생산방식의 도입실태에 관해서는 정명호(1993)를 참조.

대한 결과 붕괴되었다. 단체교섭제도가 정착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됨에 따라 매년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고 해고 및 고용형태의 변경이 어렵게 되어 임금 및 고용의 경직화가 초래된다.¹⁶⁾ 또한 노동조합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노동자들이 기업별 교섭에 기초한 초보적 수준의 경영참가를 요구하여 기업경영에서 종래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직성은 자본축적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자본은 임노동관계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외부하청, 내부하청, 임시고, 시간제노동, 파견노동 등을 시도하고 임금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職能資格制度和 成果給制度의 도입을 시도한다. 특히 외부하청 확대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數量的 柔軟性(numerical flexibility)’ 전략은 노동자 간 경쟁의 강화와 노동계급의 내부분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7년 이후 하청관계의 확대는 주로 이러한 자본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에서 임노동관계의 변화는 ‘병영적 테일러주의’에서 ‘컴퓨터지원 테일러주의’로의 전환으로 성격규정을 할 수 있다. 노동통제에서 병영적 성격은 사라졌으나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여전히 배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자본은 多技能化와 숙련향상 그리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高能率作業組織’을 만들어 ‘機能的 柔軟性(functional flexibility)’을 추구하기보다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배제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며 노동계급을 분할시키는 데 기여하는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1987년 이후 노조의 단체교섭력의 증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노동자욕구의 증대, ‘컴퓨터지원 테일러주의’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력의 재생산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실질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노동자계급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양식이 변화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량소비가 나타난다. 아울러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자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양·오락, 통신 등 지적, 문화적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대한다(정건화(1994)). 대량생산에 대응한 노동계급의 대량소비가 나타남에 따라

16)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현상은 포드주의 임노동관계의 전형적 특징이다. 이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에서 포드주의적 임노동관계가 성립하고 독점적 조절양식이 작동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1987년 이후 본래의 의미의 포드주의가 등장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주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예속적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큰 변화가 초래된다.

한편 ‘컴퓨터지원 테일러주의’에서 요구되는 소수의 高度熟練 노동력과 다수의 單能熟練 노동력이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육성됨으로써 숙련구성이 완만한 속도로 고도화한다(류장수(1993), 김종한(1993)). 企業特殊的 기술을 갖춘 소수의 독점대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이 나타나면서 기업 특수적 숙련이 형성될 조건이 마련된다. 아울러 고학력화에 따라 노동자의 평균 교육연수도 증가하고 노동력의 질이 높아진다. 1980년대의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단순반복노동에 적합한 단능숙련 노동자와 해외도입기술의 단순모방에 그치는 모방적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산했다. 그러나 일정한 하위구상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기능 숙련노동자와 신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갖춘 혁신적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요컨대 1980년대를 통해 노동력의 질은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中低價品의 대량생산체제를 넘는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력의 질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10년 동안 노동시장구조는 크게 변화한다. 우선 1975년경에 ‘轉換點’¹⁷⁾을 거치면서 制限的 勞動供給 단계에 들어갔던 노동시장이 1985년경에 노동력 부족단계로 접어든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후반에 실업률이 3% 이하로 떨어지고 구인배율이 1이 넘어 구인난이 나타난다. 상대적 과잉인구가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게 된다. 인력난은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직의 경우에 격심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직 부족률은 5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노동이동률도 1987년 이후 상당히 감소한다. 그러나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노동이동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전체적으로 근속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에 고용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규모별 임금격차가 1987년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실증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조영철(1993), 채창균(1993)), 제조업의 부문 간 純賃金隔差와 제조업 생산직의 독점부문과 비독점

17) ‘전환점(Turning Point)’은 무제한적 노동공급단계에서 제한적 노동공급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말하는 데, 한국의 경우 1975년경에 전환점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1975년 전환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연구는 배무기(1982)를 들 수 있다.

부문 간 순임금격차는 1981년에는 거의 없다가 1986년에는 상당 정도 나타나고 1989년에는 더욱 확대된다.

노동시장관련 지표들과 실증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 간에 노동시장 분단이 1980년대 중반부터 진전되다가 1987년 이후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초까지는 대·중소기업 간,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 간에 노동시장의 단일화가 진전되었다.¹⁸⁾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은 단일화로부터 분단화로 중요한 구조전환을 하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 간의 노동시장 분단은 독점기업의 거대한 이윤이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양보를 가능하게 한 조건 하에서 독점기업 노동자들이 1987년 이후 증대한 교섭력을 통해 대폭적 임금인상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노동시장에서 분단 노동시장으로의 구조전환은 1980년대 전반까지의 독점강화의 효과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勞働市場의 分斷化 경향 속에서 독점대기업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구조화되어 간다(정이환(1992)). 내부노동시장이 구조화됨에 따라 독점대기업 내부의 임노동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생산직 노동자의 장기근속에 따라 고용관계가 안정화되고 사내훈련과 기업복지를 통해 노동력재생산이 企業內部化된다.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 노동시장과 노동력의 재생산이 기업내부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점차 기업 내적 존재로 되어 간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자본은 職制改編이나 직능자격제도 등을 통해 기업 내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분할지배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상태에서 외부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간 경쟁은 완화되었지만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자 간 경쟁은 새로이 강화된다. 아울러 독점부문 노동자들과 비독점부문 노동자들 간의 분할현상이 나타난다.

임노동관계에 대해 국가는 1987년 이전까지 노동 3권을 사실상 금지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배제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면서 親資本의인 억압적 개입을 해 왔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는 종래의 폭력적 방식 대신에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개입한다. 정부당국은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중립적 제3자'라는 외관을 취하면서 협조적 노사관계를

18) 1980년대 초까지의 한국노동시장의 단일화 경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김형기(1988)를 참조.

〈표 6〉 노동시장관련 지표

(단위: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실업률	4.0	3.8	3.1	2.5	2.6	2.4
구인배율	0.97	1.02	1.24	1.28	1.18	1.18
생산직 부족률	2.4	3.2	4.8	5.2	4.9	6.9
30-99인	3.5	4.6	7.4	10.2	9.5	11.3
500인 이상	1.5	2.4	3.4	2.8	2.1	2.3
노동이동률(월)*	8.8	9.0	8.6	7.7	6.1	7.1
30-99인 생산직	13.6	13.3	12.2	13.6	12.5	13.1
비생산직	5.8	5.6	4.2	6.1	6.3	6.3
500인 이상 생산직	5.6	5.5	4.7	3.4	2.4	3.5
비생산직	3.1	3.2	2.0	2.7	2.2	2.4
생산직 근속연수	2.8	3.0	3.0	3.0	3.3	3.4
500인 이상	3.5	3.7	3.5	4.0	4.3	4.8
규모별 임금격차**	110	108	110	122	128	130

주: * 제조업의 남자 월평균 이동률임.

** 비농전산업의 30-99인 규모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500인 이상의 임금.

자료: 노동부, 『매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통계연감.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기업경영과 국가정책 수립에서 노동배제적 정책은 변함이 없었다(김형기(1992)).

요컨대 임노동관계는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주요한 계기로, 그리고 1985년경의 노동력 부족을 부차적 계기로 구조전환을 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력 부족이 노동과정-노동시장-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임노동 재생산의 전과정과 자본과 노동의 관계,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IV. 轉換期 蓄積體制的 性格과 展望

앞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전환의 여러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전환과정에 있는 축적체제를 총체적으로 성격규정을 하고자 한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확립된 예측적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자본의 재생산구조와 임노동의 재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전환을 하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표 7〉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축적체제 변화의 주요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축적체제의 주요 지표 추이

(단위: 實數 및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자본집약도(1980=100)	100	110	121	132	143	158	175	198	226	277
노동장비율(1980=100)	100	113	131	141	149	160	171	203	236	292
국내 총투자율	32.0	29.9	28.9	29.2	30.3	29.9	28.8	29.6	30.7	34.7
노동생산성 증가율	8.6	14.5	7.5	13.4	11.6	8.0	15.0	11.6	13.0	8.2
실질임금 상승률	-4.6	-1.2	7.1	8.6	5.7	7.3	6.2	8.3	11.7	18.3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0.4	2.4	-2.1	-0.4	-3.2	-8.1	-2.6	12.6	25.0	26.0
주당 노동시간	53.1	53.7	53.7	54.4	54.3	53.8	54.7	54.0	52.6	50.7
소비지출 증가율	-1.0	4.8	6.5	9.1	7.6	6.4	8.0	8.3	9.8	9.8
내구소비재 구성비	2.9	3.5	4.0	5.2	6.3	6.7	8.1	9.8	10.1	10.2
지가 상승률	11.7	7.5	5.4	18.5	13.2	7.0	7.3	14.7	27.5	32.0

주: 자본집약도=총자본/종업원 수(불변가격).

노동장비율=(유형고정자산·건설기계정)/종업원 수(불변가격).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불변가격)임.

단위노동비용이란 단위산출당 노동비용을 의미함(노동비용지수/산출지수, 미국 달러 기준).

자본집약도, 노동장비율,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단위노동비용, 주당 노동시간 모두 제조업의 경우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노동부.

우선 대량생산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본집약도와 노동장비율이 1987년 이후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도 거의 1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대의 고율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1980년대 초의 일시적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1987년 이후 더욱 상승한다. 그런데 1980년대를 통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양자가 근접한다. 그래서 1987년 이전의 ‘高生産性-低賃金’으로부터 1987년 이후의 ‘高生産性-高賃金’으로 전환한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1987년 이후 單位勞動費用이 크게 증가한다. 주당 노동시간은 19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를 통해 소비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1987년 이후 더욱 증가한다. 가계소비지출 중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비중은 1980년 2.9%에서 1989년 10.2%로 크게 증가한다. 소비지출의 높은 수준으로의 지속적 증가와 내구소비재 비중의 급증은 소비양식이 변화하고 대량소비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에는 대량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大量生産-大量消費’ 결합구조가 출현한다. 그런데 1980년대 말의 급격한 地價上昇은 주택가격과 전셋값을 폭등시켜

임금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재생산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1980년대 초에 확립된 예측적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구조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결합되고 고생산성과 고임금이 결합되는 것은 본래의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거시경제적 회로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과정에서는 ‘컴퓨터지원 테일러주의’ 아래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이 주요한 생산형태가 되고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은 부차화된다. 아울러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수량적 유연성이 추구된다. 따라서 네오 포디즘적 요소가 결합된다. 기술적 종속, 금융적 종속, 그리고 해외시장 의존의 약화로 축적체제의 예측성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한편 1987년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치민주화와 노사관계 민주화가 제한된 범위에서 진전됨에 따라 1987년 이전까지 유지되어 온 개발독재와 시장전제주의라는 조절양식이 사라져 간다. 단체교섭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고임금체제가 성립하고 독점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복지가 증진됨으로써 기업수준에서 포드주의적 ‘勞使妥協’¹⁹⁾이 이루어진다. 이는 본래의 포드주의 발전양식에서의 독점적 조절양식이 점차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최저임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지만 사회복지는 극히 빈약하다.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 ‘노사타협’은 아직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심부 포드주의와 다른 한국의 포드주의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본래의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독점자본 지배체제가 변화한다. 비독점자본의 주요 부분은 독점자본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편입되고 독점강화 속에서 하청관계를 통한 생산의 분산화 현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점부문과 비독점자본 간에 자본의 재생산과 임노동의 재생산이라는 두 측면에서 양극구조가 심화된다. 아울러 독점자본에 통합된 부문과 배제된 부문 간에 생산조건, 노동조건, 생활조건상의 격차가 확대된다. 특히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노동계급의 분할현상이 나타난다.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결합은 강화되는 데 반해 독점부문의 노동자와 비독점부문의

19) 기업수준에서의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은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자본측의 노동조직을 노동측이 수용하는 대신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고생산성과 고임금의 결합이 이 노사타협의 핵심적 표현이다.

노동자는 분할된다는 것이 1980년대 후반 한국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의 정부주도경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 민간주도경제로 전화하면서 독점자본과 국가의 관계가 변화한다. 경제운영에서 독점자본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자율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1980년대를 통해 독점자본은 국가권력과 융합되어 政經癒着 현상이 심화된다. 경제 전반에 대한 행정규제는 강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독점규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독점자본의 경제력집중은 강화되었다. 1987년 이후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된다. 그래서 점차 국민경제는 독점자본 주도로 재편되어 간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몇몇 독점자본은 개방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국제독점자본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 보면 1980년대 전반까지의 ‘독점강화-종속심화’ 경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점강화-종속약화’ 경향으로 반전하며, 1980년대 초에 확립된 예속적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1980년대 말에 본래의 포드주의 축적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네오 포디즘적 요소가 결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Lipietz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한국이 주변부 포드주의에 도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겠다. Amsden은 같은 시기의 한국자본주의를 주변부 포드주의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지만, 적어도 1980년대 말에는 한국이 이미 ‘大量生産-大量消費’와 ‘高生産性-高賃金’의 결합을 통해 內包的 蓄積과 獨占的 調節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포드주의에 도달하고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말 현재 한국의 포드주의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 사회복지의 빈약, 국민경제의 양극구조,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정치참가의 배제, 정경유착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公正性이 결여된 포드주의라 할 수 있다.²⁰⁾ 아울러 1987년까지의 개발독재체제가 가지는 효율성이 더 이상 발휘되기 어렵게 되고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單純反復勞動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1980년대에 한국에서 성립한 포드주의의

20) 따라서 Lipietz가 1990년 시점에서 한국은 ‘현재 포스트 포디즘적인 교섭에 기초한 참가의 하나의 형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Lipietz(1992))는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²¹⁾

V. 맺음말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축적체제의 전환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 더욱 진전된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을 보면, 현재의 테일러주의적 노동조직은 그대로 둔 채, 자동화, 극소전자화를 강화하면서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당국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고용의 유연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현 시점에서 보면 본래의 포드주의의 확립이 뚜렷해지면서 신보수주의적인 미국형 ‘네오 포디즘(Neo-Fordism)’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脫테일러주의적 전략을 추구하면서 勞-使-政 간의 社會的 合意가 이루어지는 스웨덴-독일형의 ‘민주 코포라티즘(democratic corporatism)적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혹은 칼마리즘(Kalmarism)과, 多能工化와 품질관리 서클(QC)을 통한 생산현장 참가가 이루어지며 기업수준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본형의 ‘미시 코포라티즘(micro-corporatism)적 도요타주의(Toyotism)’, 이 두 가지 유형의 포스트 포디즘이, 테일러주의를 그대로 두고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미국형 ‘네오 포디즘’ 혹은 네오 테일러리즘(Neo-Taylorism)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競爭優位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²²⁾ 한국자본주의도 세계화 추세 속에서 현재와 같은 네오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국민경제의 위기와 세계시장에서의 자본 간 경쟁의 격화에 대

21) 앞의 <표 3>에서 ‘요소투입당 생산’요인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960,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사실에서 1980년대를 통해 유지되어 온 축적체제의 효율성 저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1996년에 들어 한국경제의 경기둔화 속에서 경제위론이 다시 제기되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적되고 있지만, 필자는 ‘고비용-저효율’이 주로 현행의 포디즘적 혹은 네오 포디즘적 축적체제 그 자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22) 미국형 ‘네오 포디즘’과 스웨덴-독일형 ‘민주 코포라티즘적 포스트 포디즘’, 그리고 일본형 ‘미시 코포라티즘적 도요타주의’의 차이에 관해서는 Boyer(1990), pp. 43-47; Leborgne and A. Lipietz(1990); 山田銳夫(1991), pp. 135-152; 山田銳夫(1994), pp. 101-119 등을 참조.

응하여 단기적으로 네오 포디즘적 축적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포디즘적 축적체제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측적 포디즘에서 본래의 포디즘과 네오 포디즘으로 이행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移行하려면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가 산업별 노조체제로 이행하고 노동계급이 강한 사회세력과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勞-使-政 간 사회적 합의구조가 성립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스웨덴-독일형 '민주 코포라티즘적 포스트 포드주의'에 근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업별 노조체제가 유지되면서 노동운동이 脫政治化되고 기업수준의 노사합의 구조가 성립하며 숙련향상이 이루어지면 일본형 '미시 코포라티즘적 도요타주의'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생산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가 동시에 실현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의 특수성이 작용할 경우 미국형도, 스웨덴-독일형도, 일본형도 아닌 독특한 한국형 포스트 포드주의²³⁾가 성립할지도 모른다.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우선 자본 간 경쟁, 자본과 노동 간 투쟁, 노동자 간 경쟁 속에서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新經營戰略'과 노동운동 진영이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노선 간의 상호작용방식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가 설정할 노동개혁 정책과 경제구조개혁 정책의 기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 전환의 방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벌정책'과 '신노사관계정책'이 국가-자본-노동의 力關係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을 것이다.

23) 한국에서 현재의 축적체제와는 다른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새로운 축적체제가 성립될 조건과 새로운 축적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차후의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새로운 축적체제를 구성하는 주요소의 하나가 될 생산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에 관해서는 김형기(1992a)를 참조.

참 고 문 헌

1.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재벌』, 비봉출판사, 1991.
2. 김 건, “1980년대 한국의 기술능력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4.
3. 김기태 외, 『한국경제의 구조』, 한울 아카데미, 1993.
4. 김종한, “한국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형성유형 연구”, 경북대 경제학 박사 논문, 1993.
5. 김형기,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6. _____, “한국에서 생산민주주의 실현의 역사적 전제조건”,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학술단체협의회 편, 역사비평사, 1992a.
7. _____,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 발전의 평가와 전망』, 고려대 경제연구소 편, 1992b.
8. _____, “임노동론의 방법에 관하여”, 미발표논문, 1993.
9. _____, “한국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특질과 전망”, 한국사회의 변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1994.
10. 류장수, “한국노동시장의 숙련별 분단구조”,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3.
11. 박준식, “중공업 대기업에서의 노사관계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1991.
12. 배무기,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June 1982.
13. 변형윤,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1994.
14.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0.
15. 엄창옥, “한국의 산업별 기술축적체제 유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4.
16. 윤소영,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현실과 과학』 제2권, 1988.
17. 이병천, “냉전분단체제, 권위주의정권, 자본주의 산업화”,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겨울호.
18. 이재희, “한국의 독점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 문, 1990.
19. 정건화, “한국의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4.
20. 정명호, “일본적 생산방식의 국내도입실태와 적합성”, 『동향과 전망』 19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백산서당, 1993.
21. 정이환, “제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사관계”, 서울대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1992.
22. 정일용, “한국 기술도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89.
23. 조영철, “분단노동시장과 노동의 효율적 배분”, 고려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3.
24. 좌승희, 『한국의 시장개방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5.
25. 채창균, “독점-비독점부문별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3.
2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노동자연구』, 백산서당, 1989.
27. 홍장표,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3.
28. 山田銳夫, 『レギュラシオン アプローチ』, 藤原書店, 1991.
29. _____, 『20世紀 資本主義』, 有斐閣, 1994.
30. Amsden, A. H.,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New Model”, *New Left Review*, No. 182, 1990.
31. Boyer, R., *The Capital Labour Relation in OECD Countries: From the Fordist ‘Global Age’ to Contrasted National Trajectories*, CEPREM-AP, CNRS EHESS, 1990.
32. _____, *New Directions in Management Practices and Work Organization: General Principles and National Trajectories*, CEPREM-AP, CNRS, EHESS, 1991.
33. Burawoy, M.,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1985.
34. Kotz, D. M., T. McDonough, and M. Reich, eds.,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35. Leborgne, D. and A. Lipietz, “Fallacies and Open Issues of Post-

- Fordism”, International Conference Pathways to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1990’s, 1990.
36. Lebowitz, M., *Beyond Capital: Marx’s Political Economy of the Working Class*, Macmillan, 1992.
 37. Lipietz, A., “Towards Global Fordism?”, *New Left Review*, No. 132, 1982.
 38. _____, *Mirages et Miracles: Problems de l’industrialisation dans le tiers monde*, 若森章孝・井上泰夫 譯, 『奇蹟と幻影: 世界的危機とNICS』, 新評論, 1987.
 39. _____, “資本・労働関係の将来”, 『調査と研究』第2號, 京都大學經濟學會, 1992.
 40.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연구소 역,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4』), 1994.